

현대차·기아, 미래 바꿀 디자인 프로젝트 공개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 주제로 RISD와 공동연구 자연 활용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협업 프로젝트도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의 세계적인 예술대학과 공동연구한 미래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28일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이하 RISD)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을 주제로 공동연구한 프로젝트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RISD 산하 ‘네이처랩(Nature Lab)’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네이처랩은 1987년 설립 이후 자연 생명체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동식물, 곤충 등의 생물표본과 최첨단 연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기아는 자연을 활용한 미래 디자인 콘셉트 발굴을 위해 RISD와 함

께 202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이며 매년 새로운 주제와 결과물로 업계에 신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4번째를 맞은 이번 공동연구는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collaborative future living)’을 주제로 자연 및 생물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협업에선 미래 모빌리티(2020년), 미래형 도시(2021년), 지속 가능한 미래(2022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RISD 교수진 2명이 이끌고 건축, 가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공 RISD 학생 24명이 연구자로 참여했으며, 현대차·기아 디자이너들은 연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연구가



현대차·기아-RISD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미래 디자인 프로젝트’ 중 가구 디자인 연구팀이 제안한 ‘솔방울 구조를 활용한 습도·공기 반응형 인테리어 패널’ 디자인 아이디어. <현대차그룹 제공>

발 부문 엔지니어들도 함께 참여해 기술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며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공동연구는 ▲봄학기 코스(Spring Course) ▲여름학기 연구(Summer Research) ▲심화협업 과정(HMG Research Fellow)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봄학기 코스 종료 후 여름학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협업 분야는 건축(Architecture) 디자인 부문 ‘위기 속에서의 공존(Coexistence in Crisis)’과 가구(Furniture) 디자인 부문 ‘미래 공간과 자율주행차(Future Spaces and Autonomous Vehicle)’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봄학기 코스 기간에 건축 디자인 연구팀은 ▲갈대류의 통기 구조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열을 분배하는 건축물 구상 ▲개구리 피부 형태를 모방해 수분 흡수력을 높인 벽돌 재질 등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가구 디자인 연구팀은 ▲솔방울 구조를 활용한 습도·공기 반응형 인테리어 패널 ▲거미줄을 모방한 물 여과 시스템 ▲집게처럼 날개 방식의 접이식 직물 구조 등 미래 이동 및 생활 공간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부사장은 “자연의 유기적인 시스템과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디자인 구상 단계에서 큰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자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넓고 긴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와 RISD는 정규 연구 프로젝트 외에도 수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을 구현할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와 RISD는 정규 연구 프로젝트 외에도 수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을 구현할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와 RISD는 정규 연구 프로젝트 외에도 수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을 구현할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GV70 전기차, 獨서 벤츠 제치고 ‘1위’

아우토 빌트 평가 ‘최고車’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사진)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아우디 Q8 e-트론, 벤츠 EQE SUV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이 ‘우수한 전동화 시스템과 최고의 품질을 갖춘 차’라고 평가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언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GV70 전동화 모델은 평가항목 중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경제성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603점으로 574점을 받은 아우디 Q8 e-트론과 570점을 받은 벤츠 EQE SUV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우수한 주행성능을 갖춘 PE(Power Electric) 시스템, 빠른 충전 속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으며 뛰어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환경기술, 외부 소음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성 항목에서도 최상위 점수(80점)를 받았으며 유지보수, 보증 등으로 구성된 경제성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79점)를 기록했다.

임재만 기자

금호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 최상위 클래스 후원

N1 클래스에 레이싱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가 원메이크(단일 차종 경주) 레이싱 대회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 I)’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올해 현대 N 페스티벌은 ‘아반떼 N 컵(프로급, N1 클래스)’을 비롯해 ‘벨로스터 N 컵(아미추어급, N2 클래스)’, ‘아반떼 N 라인 컵(입문자급, N3 클래스)’ 스피릿 클래스와 ‘아반떼 N 타임 트라이얼’, ‘벨로스터 N 타임 트라이얼’, ‘아반떼 N 라인 타임 트라이얼’ 타임 트라이얼 클래스가 운영된다.

이 중 금호타이어는 현대 N 페스티벌의 최상위 프로 클래스인 N1 클래스에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

N1 클래스는 서킷 레이스만을 위해 개조된 고성능 N의 원메이크 레이스로 레이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인 ‘엑스타(ECSTA) S700’와 빗길에서도 견고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 ‘엑스

타이어 공급 협약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장혁 상무(왼쪽)와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가 현대N페스티벌 최상위 클래스 타이어 공급 협약식을 체결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타(ECSTA) W700, W701’을 장착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까지 레이싱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신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외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당사가 출전하고 있는 글로벌 최상위 TCR 대회인 금호 TCR 월드 투어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대회에 오피셜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 받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인 현대 N페스티벌의 아반떼 N컵 공식 타이어로 금호타이어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장혁 상무는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현대 N 페스티벌에 금호타이어가 파트너사로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십년간 축적해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유럽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금호 TCR 월드 투어 이벤트(KUMHO TCR World Tour Event)’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임재만 기자

<h3>이동식주택 매매 (장성,담양)</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5분, 광주 20분, (6m도로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지 50평 ② 이동식 1채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50평,100평,15평,200평 가능 <p>★ 매매가 - 6,800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유형 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p>(보3천,월수익 38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서구 치평동 (상가빌딩) ▶ 감정가 250억 → 최저가 170억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 ▶ 감정가 9억4천 → 최저가 6억6천 북구 일곡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 → 최저가 5억5천 동구 불로동 (상가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연산동 (공장) ▶ 감정가 29억 → 최저가 16억 북구 신운동 (1층 상가) ▶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 1억3천만 장성군 북이면 (집중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010-6670-9800</p>		